

문재인 37.7% .. 안철수 19.1%

대선 D-7

광주일보·한신협·갤럽 여론조사

광주일보를 비롯한 전국의 지역 대표 신문 8개사로 구성된 한신협(한국지방신문협회)이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이틀 동안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37.7%의 지지율을 기록, 선두를 달렸다.

〈관련기사 2·3·4·5면〉

다음으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9.1%의 지지율을 기록했으며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14.9%,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8.4%,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3.6%의 지지율을 각각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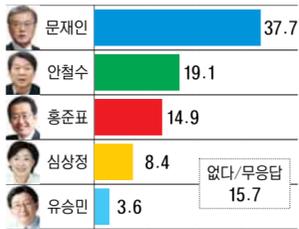
이 같은 결과는 대선 공식선거운동 중반까지 유지됐던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양강 구도가 사실상 붕괴되고 1강(문재인)-2중(안철수·홍준표)-2약(심상정·유승민) 구도로 재편된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문 후보는 지지율 40%선을 넘지 못해 확장성 측면에서 여전히 약점을 나타냈다. 안 후보는 사실상 양강 구도에서 밀려나면서 대선 막판 대역전극을 펼치기 위해서는 결정적 계기가 필요한 것으로

홍준표 14.9·심상정 8.4·유승민 3.6% .. 호남 文 45.6·安 28.3%

당선 예상 후보 문재인 65.7% 1위... 우선 해결과제는 경제 활성화

■ 대선 5자 대결 지지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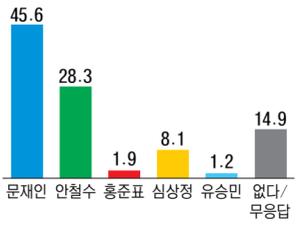


분석됐다.

보수 주자인 홍 후보는 오차범위 밖에서 간발의 차이로 안 후보의 뒤를 바짝 쫓는 등 상당한 상승세를 보였다. 정의당 심 후보도 8.4%의 지지율을 기록하는 등 진보 정당 대선 주자 최초의 두 자릿수 지지율도 넘고 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문 후보가 45.6%의 지지율로 28.3%의 안 후보를 17.3%포인트 차이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 후보는 호남권에서 8.1%의 지지율

■ 호남 대선후보 지지율 <단위: %>



을 나타냈다.

관심을 모았던 보수 표심은 홍 후보로 점차 이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수의 본산인 TK(대구·경북)에서는 홍 후보는 30.0% 지지율로 선두를 달렸으며 문 후보는 23.9%로 2위를 나타냈다. 안 후보는 15.7%의 지지율에 그쳐 보수 표심의 이탈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통령 당선 예상 후보로는 문재인 후보가 65.7%를 기록, 5.6%에 그친 안철수, 홍준표 후보를 압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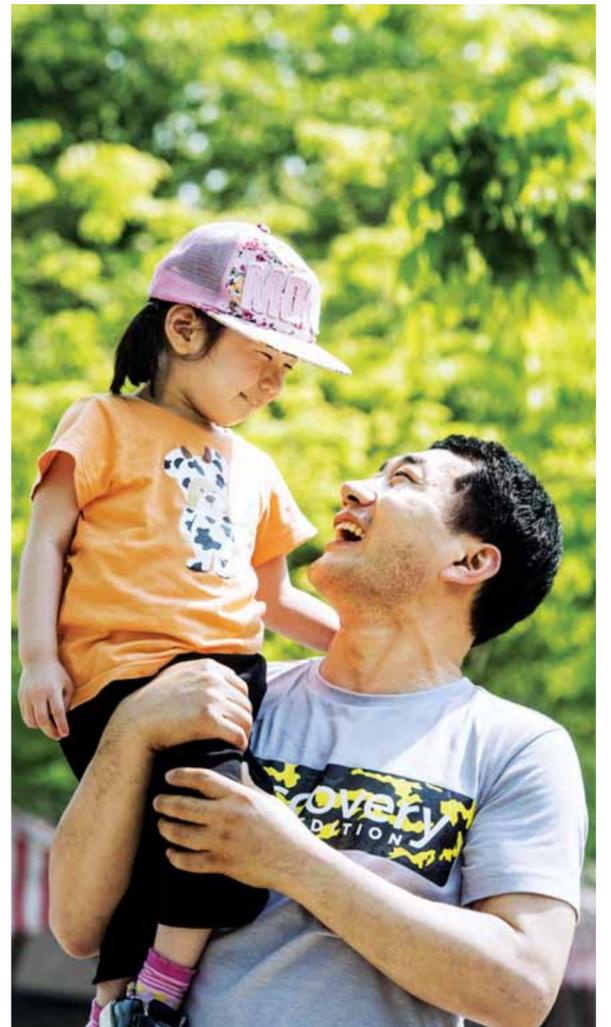
차기 대통령의 우선 해결 과제로는 경제 활성화(17.3%), 일자리 창출(14.3%), 안보(12.0%) 순으로 나타났으며 적폐 청산은 3.7%에 그쳤다. 사드 배치에는 찬성이 45.5%, 반대가 36.7%로 집계됐다.

응답자 가운데 69.3%는 현재 지지하는 후보를 계속 지지할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낸 반면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는 답변은 29.5%였다. 오는 4~5일 실시되는 사전투표에 참여하겠다는 응답은 29.4%에 달했다.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이 35.6%, 국민의당 13.7%, 자유한국당 13.0%, 정의당 7.1%, 바른정당 5.8%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주 금요일 TV토론에서 가장 잘했던 주자로는 심상정 후보가 34.8%, 문재인 14.4%, 홍준표 13.3%, 유승민 12.7%, 안철수 4.4% 순으로 집계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의 만 19세 이상 남녀 3,077명이 참여했으며 조사는 유·무선 전화면접으로 진행됐고 오차범위는 ±1.8%포인트(95%신뢰수준), 응답률은 28.0%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공정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아빠와 딸 가정의 달 5월의 시작이자 근로자의 날인 1일 광주 북구 패밀리랜드 놀이공원에 나들이 나온 아빠와 딸이 싱그러움 햇살 아래에서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며 웃음 짓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일보 제19대 대선 투표 참여 캠페인

#나는 _ 투표한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살아갈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광주 촛불집회 사회자 백금렬

백금렬(46)씨는 지난 겨울 금남로를 밝힌 촛불집회 중심에 섰던 사회자로 시민들에게 친숙하다. 광주시국촛불대회 진행자로 나서 구수한 입담과 거침없는 비판으로 시민들의 가슴을 시원하게 만들었다. 소리꾼으로 지역방송 국악 프로그램 ‘열씨구 학당’에 출연하며 얼굴을 알린 그는 2008 광주 광우병집회, 2014 세월호 추모 집회 등에서 마이크를 잡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현재 주월중학교 한문교사로 재직하고 있는 백씨는 투표하는 이유로 제자들을 꼽았다. 백씨는 “한국은 OECD국가 중 학생 행복도가 최하위권으로, 학생들이 슬한 아픔을 겪고 있다”며 “학창시절뿐 아니라 졸업하고도 인간다운 새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

新 湖南誌 - 전라도 1000년

신에게 바라는 소망, 마을굿 ▶ 18면

KIA 타이거즈 전망대

넥센·롯데 원정 6연전 1위 사수 ▶ 20면

5·18 계엄군, 부상자 입원한 전남대병원에 총기 난사했다

‘5·18 10일간 야전병원’ 증언집

5·18민중항쟁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이 총상자 등 부상자들이 넘쳐나던 전남대병원을 향해서도 무차별 사격과 폭파협박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전두환 전 대통령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을 통해 “공수부대는 대검을 휘두르지 않았다. 여성 유방을 드러낸 일도 있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정면으로 뒤집는 의료진 증언도 구체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사실은 전남대병원이 제37주년 5·18민주화운동기념일을 앞두고 펴낸 ‘5·18, 10일간의 야전병원’이라는 전대병원 의료진 증언집을 통해 밝혀졌다.

증언집에서 복수의 의료진은 “계엄군이 전남대병원 진입작전이 자행된 1980년 5월 27일 새벽 병원을 향해 무차별 사격을 가했으며 이후 총을 들고 병원에 들어와 병실마다 위협적인 수색작전도 벌였다”고 증언했다.

이는 전에도 적국의 의료시설은 공격하지 않는다는 국제협약(제네바협약)마저도 무시한 전두환 등 반란군 핵심세력의 잔혹성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로, 진

압작전 이전부터 전남대병원을 진압 목표로 정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5·18 당시 이뤄진 집중 사격은 계엄군이 광주서 일시 퇴각하던 21일 단 한 차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남대병원 의료진 증언을 통해 도청진압작전이 이뤄진 27일 한차례 더 자행됐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다.

5·18 당시 마취과 레지던트였던 유경연 전남대의과대학 명예교수는 “1980년 5월 27일 계엄군은 병원 담 쪽을 에워싸더니 일제히 총격을 가했다. 날이 밝아 확인한 결과 11층 병실의 유리창 대부분은 총격에 깨졌다”고 말했다.

당시 정형외과 교수였던 노성만 전남대의과대 명예교수는 전남대병원에 대한 첫 집중사격이 이뤄진 1980년 5월 21일 상황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계엄군은 당시 정형외과과가 있는 건물을 향해 총을 수평으로 들고 왔다. 불이 켜져 있는 2층을 보고 사격했으며 총소리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바닥에 엎드렸다”고 기억했다. 이후 당시의 총탄 흔적이 남아있는 노 교수의 캐비닛과 가까운 현재 전남대 5·18연구소와 전남대의학박물관에 각각 전시돼 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美 “사드 비용 재협상” 논란 재점화

청와대 발표 뒤집어

허버트 맥매스터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으로 촉발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비용부담 논란과 관련, 방위비 분담금과 마찬가지로 사드 비용도 재협상하겠다는 뜻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4·8면〉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폭스뉴스 스테이’ 인터뷰에서 관련 질문에 이렇게 말했다.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먼저 진행자인 크리스 웰러스가 ‘당신이 한국 측 카운터파트에 기존 협정(한국 부지제공, 미군 전개 및 운영유지비 부담)을 지킬 것이라는 말을 했었는데 사실이냐’고 묻자 “내가 가장 하기 싫어하는 것이 미

국 대통령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런 게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는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설명을 담은 청와대의 공식 보도자료 내용과는 사뭇 달라서 파장이 일고 있다. 김 실장은 전날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의 전화통화 사실을 전하면서 양국이 사드 전개 및 운영유지 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양국 간 합의 내용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이 신문광고는 「공직선거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른 광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를 대한민국의 문화수도답게! 문재인이 만들겠습니다

-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및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
- 광주공항 이전 지원 및 종전 부지에 스마트 시티 조성
- 미래형 자동차 전장부품 생산기반 조성 및 「광주형 일자리」 성공 지원
- 아시아문화전당 활성화 및 7대 문화권 사업 활성화
-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
- 도시재생을 위한 주민참여형 도시혁신사업 추진
- 민주·인권기념파크 및 국립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조성
- 광주역을 아시아 문화의 관문으로 조성
- 인공지능 기반 과학기술창업단지 조성
- 빛가람 혁신도시와 광주 도시첨단산단 중심으로 에너지밸리 조성 및 한전공대 설립
- 전남·장성·광주 북구 포함한 광주연구개발특구 내 「국립심혈관센터」 건립
- 광주-대구 동서내륙철도 (달빛내륙철도) 건설 추진